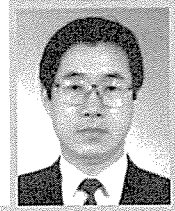


정보시스템 감리 小考



(주)연합정보기술/대표컨설턴트 이 경 덕

민간 정보시스템 전문 감리회사가 한국전산원의 공공분야 감리를 대행하기 시작한 지도 벌써 4년이 지났다. (주)연합정보기술은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감리 전문법인으로 처음 설립된 회사이다. 1997년 9월 9일 창립과 더불어 전자신문에 한 면을 빌려 전면광고를 한 기억이 새롭다.

이젠 15개 정도의 민간감리 전문회사가 설립되어 국내의 소프트웨어품질 향상과 건전한 정보화를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다. 정보시스템 감리 시장의 개척을 위해 아직 법적 제도화가 안된 상태에서도 정보기술분야에서 오랜 경험과 기술을 축적한 전문인력의 활용하여 공공부문의 시스템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SI업체들의 수준을 높이는데 나름대로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자부하고 있다.

정보시스템의 감리는 이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이 자신의 경력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場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흔히 외국의 나이 많은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활동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정보시스템분야는 빠른 기술발전의 속도와 승진시 관리업무 등으로 현장

업무와 멀어지게 되어 CIO는 흔히 Career Is Over라고 자조적인 농담을 하듯이 조기 은퇴의 대상이 되고 그 이후에는 마땅한 일자리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감리 분야는 젊은 엔지니어와 함께 반드시 전체를 보는 안목을 가진 오랜 경험을 전문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도 현장에서 후배들을 지도할 수 있다.

회사를 설립한 후 감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우리보다 감리를 15년 앞서 시행해온 일본정보시스템감사학회의 미야카와 타다오회장을 초빙하여 세미나를 개최한 적이 있었는데 그는 정보시스템 감리는 전문기술자뿐 아니라 전체 조직을 이해하는 경영의 마인드를 가진 경력자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였는데 현장에서 감리를 하면서 이 말에 공감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감리를 하게되면 다양한 여러 분야의 시스템을 접하고 세밀히 관찰할 수 있으므로 현장에서 배우는 좋은 기회가 많아지는데 자기개발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나는 정보시스템 감리를 통하여 많은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이 범위를 넓힌다면 컨설팅분야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정보시스템 감리는 급속히 변하는 정보기술분야와 전통적인 사회과학분야인 감사분야가 접목된 분야이며 객관적인 제 3자로서 평가하는 업무이므로 흔히 숨가쁘게 따라가야 하는 나이 많은 경력자로서의 부담도 작다고 할 수 있

다. 감리는 현장에서 젊은 전문가들의 개발된 시스템을 지적하는 업무이므로 아무래도 같은 나이 또래이거나 젊은 사람보다는 나이 많은 사람이 지적하는 것이 우리나라 정서상 무리가 없고 쉽게 수용이 되는 것도 또 하나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감리는 공공분야에서부터 확산되고 있는 중이며 감리를 의뢰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은 그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관리직 공무원들은 순환보직에 따라 한 직책에 2년 이상 담당하는 경우가 적기 때문에 급속하게 변화하는 정보기술용어를 이해하기도 힘든 형편이며 실무담당자들은 행정처리에도 바쁜 상태이다. 그러므로 예산이 수억원에서 수백억원에 이르는 외주업체가 개발한 시스템을 감리할 전문기술, 인력, 시간이 부족한 상태이므로 점차 감리 의존도는 커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공직사회에서 감리는 발주자와 개발회사사이에 발생하는 이견과 쟁점사항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는데 의외로 이런 자문역할을 나중에 감사원감사를 의식해야 되는 공무원들이 선호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개발회사입장에서도 계약 외의 부당한 요구사항에 대하여도 감리를 통해 조정될 수 있으며, 대형 프로젝트의 경우 프로젝트 매니저가 수많은 협력업체와 공동 작업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표준화 및 품질문제에 대해 완벽히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므로 이런 면에서 개발회사도

외부 감리의 도움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감리시 보람을 느꼈던 모 중앙부처의 ISP감리시 예를 들어본다. 그 중앙부처는 재경부에서 예산을 받아 전국규모의 시스템 구축하기 위해 국내의 우수 업체에 ISP를 의뢰한 것을 감리한 일이 있었다. 6개월 동안 30여명을 투입하여 그 SI회사는 3년을 구축기간으로 420억원의 예산을 산출한 내용을 보고서로 작성했다. 최종 감리시 면밀히 점검한 결과 시스템의 도입시기와 소프트웨어의 개발 시기가 맞지 않고 일부 하드웨어의 용량산정시 오류가 발견되어 예산을 재 산정 하도록 시정 조치한 결과 제 1안 290억원 제 2안 330억원으로 조정되었다. 제 1안의 경우 무려 31%의 예산 절감의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나 뿌듯한 보람을 느낀 경험을 잊을 수 없다.